

# 새로운 고점을 기대하는 돼지고기 생산량

-98년 전세계에서 11억 마리 도축

지난해 세계 돈육시장은 돼지고기 공급의 풍부함 그 자체였다. 가격에 미치는 이러한 공급의 영향은 그 해가 끝나기 벌써 오래 전부터 너무나도 명백했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양이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단지 지금에서야 손에 넣게 되었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8,360만 톤의 돼지고기가 생산되었다. 언뜻 보아 이것은 98년 6월호에서 우리가 인용한 바 있는 97년도의 8,800만 톤의 추정치와 비교해 볼 때 감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때 이후로 특별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적용되는 몇몇 새로운 계산치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인 생산량의 수치가 개정되어 왔다. 이러한 개정의 결과로서 97년 총 생산량은 도체중 8,100만톤 미만으로 수정되었다. 그래서 작년의 생산은 97년 보다 거의 290만 톤 더 많았다. 이것을 좀더 날카롭게 분석해보는다면 연간 3.6%의 증가는 90년대 다른 어떤 해에 비해서 볼 때 가장 높았다. 90년에서 98년 사이에 전세계 돼지고기생산은 연간 평균 2.27% 증가했다. <표1>에서 비록 96년에 기록된 약간의 감소라는 예외가 있지만, 우리는 이 기간동안 매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팽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98년도까지 가장 커다란 연간 생산증가율은 93, 94년도의 30.2%와 30.25%였었다.

- 홍 보 부 -

그 이후 2년 동안은 상대적인 정체의 길을 걸었다. 더 많은 도축량은 98년도의 톤 수의 증가에 기여했다. 전세계 돼지고기의 도축은 새로운 고점인 11억 마리로 거의 3.2%가 증가했다. 이중 55%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농장

에서 나온 것이었다. 26.5%는 유럽의 생산자들에 의해서 공급되었다. 아프리카는 1.5%인 반면, 미 대륙의 비율은 대략 17%였다. 다음에 나오는 <표>들은 98년과 97년도를 비교했을 때 각 나라마다 도축된 돼지숫자의 지역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목록에서 <표1> 네덜란드의 눈에 띄는 큰 증가는 그 이전 연도의 전형적인 돼지 콜레라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것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왜곡된 숫자이다. 그와는 달리 유럽 서부지역에서, 대부분 나라들의 생산량 증가

와 중동부 지역에서 목격되는 연간 감소량 사이에 분명한 대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 목록에 나열된 나라들에서 도축된 돼지의 수가 순수하게 600만 마리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2>는 중국에서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10년 동안 중국 통계 수치에 대한 불명확한 점들이 해결 되고 있지만 중국의 최근의 도축 마리수의 증가는 단지 추정치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여러 자료가, 작년 한해동안 5~7%라는 생산의 증가를 암시하고 있다.

<표1> 유럽 국가의 연간 돼지 도축두수

(단위 : 천두, %)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네덜란드	+3,488	+23	에스도니아	+33	+8.5
독일	+974	+2.5	스웨덴	+24	+0.5
프랑스	+710	+3	벨기에-룩셈부르크	+20	+0.2
영국	+654	+4	그리스	+5	+0.2
헝가리	+400	+8	오스트리아	-10	-0.2
스위스	+220	+9	포클랜드	-30	-1.5
스페인	+190	+6	크로아티아	-40	-5
덴마크	+186	+9	몰도바	-43	-9
아일랜드	+154	+5	조지아	-50	-9
이탈리아	+136	+1	루마니아	-71	-1
핀란드	+99	+4.5	우크라이나	-210	-2
포르투갈	+84	+2	슬로바키아	-221	-9
체코공화국	+77	+1.5	러시아	-700	-3
벨라루스	+54	+1.5	리투아니아	+42	+4

<표2>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연간 돼지 도축두수

(단위 : 천두, %)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97년대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중국	+30220	+7	레바논	+2	+1.5
한국	+1287	+12	몽고	+2	+10
필리핀	+826	+5	씨프러스	-2	-0.5
베트남	+590	+3	아제르바이잔	-4	-20
인디아	+479	+4	우즈베키스탄	-5	-3
오스트레일리아	+156	+3	아르메니아	-8	-16
미얀마	+128	+6	터크마니스탄	-8	-23
카르지스탄	+58	+22	일본	-166	-1
라오스	+42	+3	북한	-225	-13
네팔	+21	+6	카자흐스탄	-460	-34
뉴질랜드	+21	+3	대만	-1170	-10

〈표3〉 아메리카 대륙의 연간 돼지 도축두수

(단위 : 천두, %)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미국	+9,068	+10	우루과이	+19	+6
브라질	+1435	+7	엘살바도르	+14	+7
캐나다	+812	+5	과테말라	+6	+3
멕시코	+502	+4	니카라과마	+5	+4
칠레	+197	+8	네스, 안틸레	+0.5+25	0
에콰아도르	+79	+3	파나마	-0.2	-0.1
볼리비아	+78	+6	코스다리카	-20	-7
하이디	+24	+6	베너주엘라	-80	-4
오들라스	+22	+5			

〈표4〉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연간 돼지 도축두수

(단위 : 천두, %)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97년대비 증가두수	97년 대비 증가율
나이지리아	+640	+10	차드	+6	+30
카페베르데	+35	+30	앙골라	+5	+2
남아프리카	+30	+2	마다카스카르	+5	+0.5
버키나 파소	+20	+6	짐바브웨	+5	+2
가나	+17	+5	세네갈	+4	+2
카메룬	+15	+1	잠비아	+4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5	+4	케냐	+1	+1
말라위	+15	+6	니제르	+0.1	+0.5
우간다	+12	+1	코디디아이보리	-26	-10
토고	+10	+2	베닌	-28	-10

나머지 나라들에게 있어서 1998년은 증가와 감소의 혼합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한국과 필리핀의 주목할만하게 생산량 증가는 일본과 대만에서의 하향추세를 벌충하는 것 이상이었다. 총체적으로 이 〈표〉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3,200만두의 도축두수가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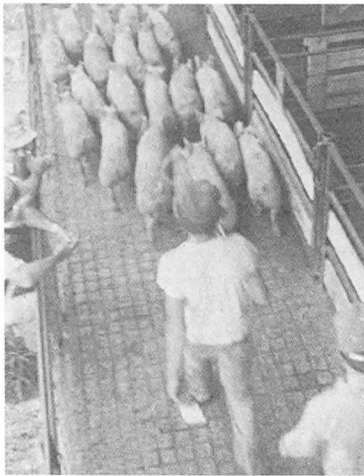
〈표3〉은 미 대륙 대부분의 나라에서 98년도는 증가의 한 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가장 많은 3개 국가들이 있는 북, 중앙아메리카 국가도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도축된 돼지가 1억 마리를 초과했다. 1990년 최근까지 미국의 연간 도축수는 8,550만 마리 이하였다.

98년과 비교해 볼 때 9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도축장으로 보내진 돼지숫자의 순수한 증가는 〈표3〉에 나열된 나라들에 비해 1,2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되어있다.

〈표4〉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돼지 도축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표4〉는 대다수 아프리카 나라들이 겨우 잠정적인 숫자만을 손에 넣을 수 있으므로 〈표4〉는 단지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지침으로 취급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의 생산 패턴은 바닥으로부터 꾸준한 상승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나라들의 도축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최소한 25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처리되었다.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올해에 도축두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작년 말에 기르던 돼지 숫자에 기초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결과는 99년 중반 이후 시장에 출시된 돼지 숫자의 상당한 감소를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15개 국가에서 1월과 6월 사이에 공공 도축장에 나온 양은 98년 그에 상응하는 6개월 동안보



지난해 전세계에서 4천만두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었으며, 11억 만두가 도축되는 신기록을 수립했다.

처럼 보인다. 전반적인 결과는 98년에 75%의 증가이후 도축된 수에 있어서 연간 29%의 증가일

다 6.9%가 더 많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보다는 0.7%가 더 적은 것

것이다.

올 초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된 도축두수 추정치는 미국과 러시아에서 각기 1.3%와 4.5%의 감소이다. 돼지도축 두수가 감소될 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다른 주된 생산국들은 한국(-4.7%), 대만(-1.3%) 그리고 일본(-0.1%)이다. 그러나 중국의 연간 총생산량은 1%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캐나다는 5%, 멕시코는 0.6%, 브라질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 생활상식

### 식사지침의 키포인트

- 식사는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과식을 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
- 우리 몸에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 각 식품마다 들어 있는 영양소가 다르므로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즐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면 소화가 잘 되며, 위장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 편식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골고루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아침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 거르지 말아야 한다.
- 가공식품은 특히 염분의 함량이 많고 여러 첨가물이 문제가 되므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외식시에는 짜고 기름진 음식과 과식을 주의해야 한다.
- 동물성 지방은 혈액속의 중성지방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높여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자주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나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단음식에 포함된 단순당은 몸에 빨리 흡수되며 쓰고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간, 혈관, 피부 등에 쌓여서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 등을 유발한다.
- 과음이나 잦은 음주는 간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영양소의 흡수, 이용을 방해한다.